



# 이것만은 알고 키우세요!

닭을 고기나 공급하고 계란이나 공급하는 미련한 생물로만 생각하기 앞서 정성을 다해 애정을 갖고 관리해 나간다면 닭의 스트레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생산성향상에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사육자가 닭의 생리를 좀 더 이해해서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더 많은 이익을 얻자는 뜻에서 피력해 보았다.

## 〈머릿말〉

닭은 결코 미련하지 않다. 신선한 동물이다. 거짓없고 꾸밈없는 동물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일방 통행이다. 받으려고만 하였지 줄줄은 모른다. 깊이 이해하고 정성을 다하는 가운데에서 좋은 결과(비결)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럴질 못하다.

이제부터는 무엇인가를 알고 찾아야 하겠다. 그 가운데에서 원가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능력향상을 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본고에서는 닭을 이해하자는 뜻에서 미려하나마 몇가지로 세분하여 생각해 보았다.

1. 첫째, 닭은 결코 미련하지 않다.

2. 둘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 셋째, 자연법칙 파괴법

4. 넷째, 특성(성질)

5. 다섯째, 능력껏

6. 여섯째, 스트레스(stress)

7. 일곱째, 제언 이상 일곱가지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해 보면,

1. 닭은 결코 미련하지 않다.

많은 사람이 닭을 너무 멸시하는 것 같다.

고기나 공급하고, 계란이나 공급하는 것으로 밖에 알고 있지 못하다. 사람들은 미련한것을 닭대가리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어떤 면에선 사람보다 훨씬 영리하다. 본능이나 감각은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다.

김 형권  
천호부회장 생산부

그런데 여기에 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문제가 있다. 닭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닭자체를 파괴해 버린다. 닭의 특성(개성)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는지요?

그리고 거기에 최선의 방법으로 대처해 주어야되지 않겠는지요? 단 순하고 답답한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동물이기 때문에 단순한 것 뿐이다. 그것이 미움이 될 수는 없다. 장점과 특성(성질)을 개발해 그것이 문제가 되지않아야 되겠다는 것이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할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되어 버렸다. 크나큰 장애요인이 되어 버렸다. 무시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다룬다. 연구하며 생각해보지 않는다. 좋은 결과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본능과 특성이 단점으로 일방통행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었고 좋은 결과를 창출해내지 못했던 것이다. 이것이 제 자신도 어려운 이야기라고 느껴

진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하여야 된다. 주는 것없이 받을 수는 없다. 연구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바랄 수는 없다.

무엇인가 정성 가운데에서 자세히 관찰하고 이해하며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더욱 좋은 결실이나 결과가 있게 마련이다. 결론은 이런 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여야 한다.

어떤 일에 문제점이 최선의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원기를 절약할 수 있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될 것이다. 저 자신도 이 문제를 통하여 몇가지 얻은 것이 있다. 제삼 우리는 닭은 결코 미련하지 않다고 생각해야한다. 애정과 사랑으로 키워야 한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합시다.

## 2.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닭을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때 그때 대처해 나아가야 한다. 주인은 경영능력이 있어야 하고 자기 환경에 맞는 능력을 발휘

할 줄 알아야 한다. 순리대로 해야 한다. 닭을 자세히 알지 않고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오랫동안 경험과 실 무가 무척이나 요구된다. 이론은 기본이다. 기본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일 하나 하나에 최선의 정성이 요구된다. 단계적으로 생각해 보면

첫째 자기 능력에 맞는 환경이다. 닭을 알고나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 여기에서말 한 환경을 시설이나 시기 위치조건 기타 문제점을 말한다. 시설및 투자 규모, 경영규모를 유효적절하게 자기 능력에 맞게 재량껏 요리할수 있다면 첫단계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사양관리이다. ①육추 ②육성 ③성계관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세가지는 공통의 목표와 결과를 위해서 존재한다. 한가지라도 허술하게 지나칠 수는 없다. 정상의 능력을 정복하려면 먼저 닭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관리사항 하나하나에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나기야될 것이다.

육추방법

육성방법

성계관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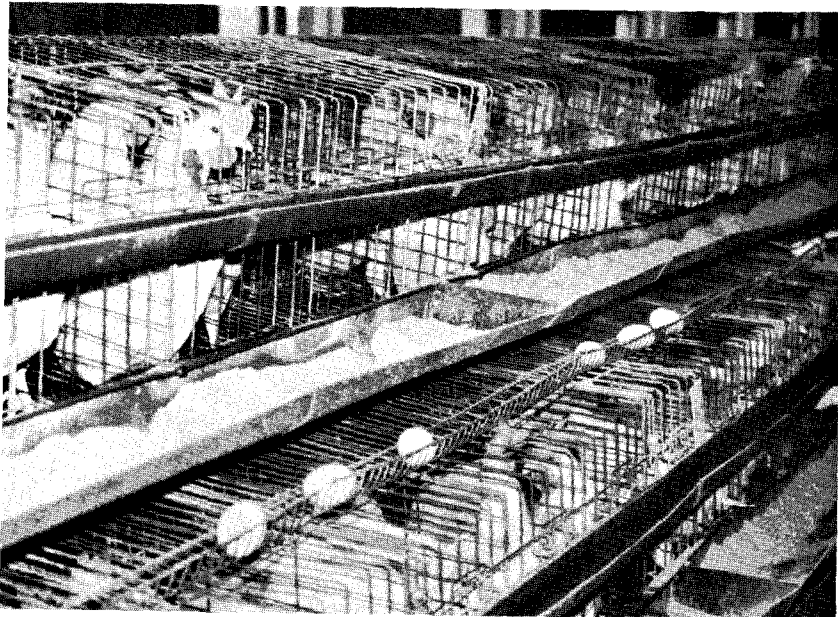
비결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의 효과도 뽑아낼수 있다. 저 자신도 연구하고 있으며 몇 가지에 대해서 정리가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지면을 통해서 써 보겠다.

## 3. 자연법칙 파괴법

자연은 순수하다.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끊임없이 창조되고 희생되기도 한다.

현 세대는 일방적으로 자연을 파



피만 하고 있다.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인하여 생각이 무디어지고 자연에 소중함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자연을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여 보아야 된다.

닭도 근본은 자연의 일부였다. 사람이 개량했으며, 그리고 끊임없이 개량해 나가고 있다.

개량할줄만 알았지 근본적인 자연에 순수성은 생각하려 하지않고 있다. 무리하게 희생만 요구하였지 닭의 입장은 생각지 않는다.

특히 관련된 사람이라면 닭의 입장도 겸해서 생각할줄 알아야 된다.

그 가운데에서 정성과 이해가 더욱 좋은 결실(결과)로 나타나리라 생각한다. 나타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우리는 순수한 자연의 법칙도 이해할수 있는 여유 마음가짐을 갖고 더욱 폭넓게 닭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

#### 4. 특성(성질)

닭은 단순하다. 어떻게 생각하면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 변화를 가장 싫어한다. 그리고 겁이 많고 어떤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한머리가 놀라면 다른 모든 계군이 놀란다. 외편쪽(역치기)닭이 맞은쪽(마주보는쪽)닭보다 대체적으로 성적이 낮은 것만 보아도 닭의 성질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 수가 있다.

첫째 닭은 안정을 바라고 있다. 둘째 환경에 민감하다.

셋째 변화를 싫어한다.

네째 단순하고 본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닭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한다. 관리사항에 있어 최대한 스트레스(stress)요인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좋은 환경을 주어

야 한다.

그리고 외부와 차단해 주어야하며 계사 소독은 야간에 하는 것이 좋다. 21:00~22:00시.

계사내부 시설이나 계사내 행동을 삼가하여야하며 관리자도 험카운으로 눈에 익은 복장. 한가지 복장으로 통일해서 변화를주지 말아야 되며 이 모든 점이 닭을 안정시켜 사료효율 및 질병 기타 산란율 모든 것에 좋은 결과를 줄것이다. 개개인 스스로많은 정성이 요구 된다.

#### 5. 능력껏

제한 요건이 절대적인 상황아래서 능력껏,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다, 해보아야 될것이어닌가 강조한다면 답답한 친구, 능력껏 해보려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있겠나? 반문할 사람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상황, 불리한 외적요인이 주어진다해도 좋은 결과는 좋은열매로 자기 자신을 최대한 보존해줄 것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문제가 생기기전에 예측하여 예방해본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더 나아가 하는 일에 결과도 예측하여볼 필요가 있다. 자기 스스로 잘하고 있다 생각할지라도(예사라도) 일시적 한순간 허점이 노출된다면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것은 감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결과위에 더 좋은 결과 ①육성율이나 ②산란율이나 ③사료효율이나 ④원가절감이나 ⑤관리개선문제 등등 얼마든지 폭넓은 시야는 더넓게 드러나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고서는 경쟁의 시대에 경영에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닭고기 수입문제로 걱정에앞서 현실(실제 사양)에서 문제를 개선한다면 국제경쟁사회에서 뒤지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저는 학술적인 깊은 지식은 없으나 이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결코 사양기법은 앞으로도 더욱 무한히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 6.스트레스(St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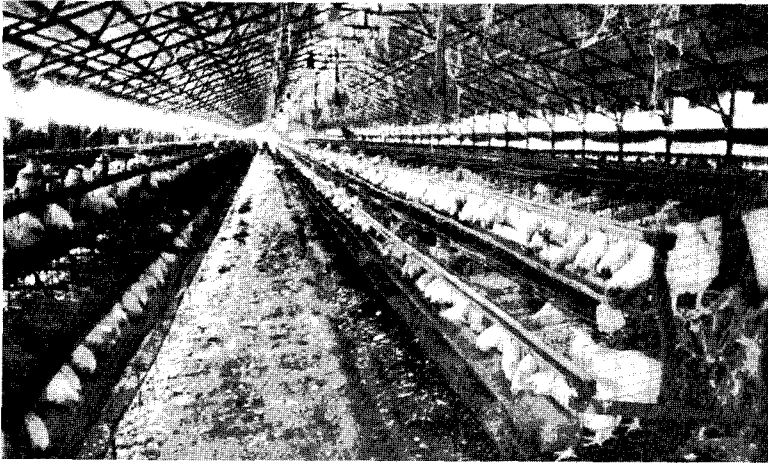
사람이 심정이 상하면 뼈를 말린다고 했다. 늙고 병들고 마르게 된다. 현대인은 누구나 조금씩은 갖고 있는 병이며 국가나 개인은 Stress 해소를 위해서 많은 투자와 시간낭비를 하고 있다.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닭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육체를 가졌고 생각하는 것은 마찬가지로이다. 닭도 사람보다 더많은 스트레스에 직면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지, 생각 못해주는건지, 닭을 키우는 사람으로써 꼭 이것만은 알고 키웁시다. 강조하고 싶은 말이다. 키우기에 앞서 사람은 닭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천박하게 대하여, 완전 무시해 버린다. 제일 천대받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

우리가 이용할때는 이용하더라도 닭을 사랑해 주어야 한다.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정성껏 다루어야 한다. Stress예방을 연구하며 노력해야 한다. 최대한 닭이 Stress를 받지않도록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부화장에 서부터 도태시까지 Stress요인이 너무 너무 많다. 사람위주의 관리가 되는 경우도 많다. 할수 있는데까지 는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준비



가 부족해서, 귀찮아서, 몰라서, 무식해서 단순하게 생각해서.....관리 사항에 있어 하나하나 생각해보자. 그리고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관리시, 이동시, 접종시, 외적, 내적, 모든 문제에 한가지 한가지 개선한다면 닭은 좋은 결과를 줄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근본적인 문제로 경영개선 원가절감 능력향상을 기

합시다.

### 7. 제언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써 평범한 마음으로 무식하게 기술 하거나 않았는지 모른다. 없어야될 필요없는말도 기록했으리라 생각된다.

최근에 필자는 중요한 사실을 알았

다. 더 연구하고 확실한 결과가 나타날때 말씀드릴수 있을 것 같다. 천호부화장에서 수년간 생활하면서 체계있는 농장운영방침 자유의지가 상당한 힘이 된다. 여기에 몇가지 여러양계 종사자님께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여야 되겠다!

이것이 참고가 될수 있다면 뜻이 있는 일이 아닌가해서 요점만 두서 없이 적었다. 한가지 결론을 붙인다면 문제는 있을 수가 없다. 혹 문제가 있으면 근본적인 해결을 할줄 알아야 한다. 경영예측, 결과예측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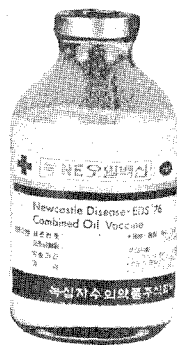
더 낮은 육추, 육성, 산란율, 파란 문제, 사료효율, 계분문제, 원가절감문제 등등 복잡한 것 같지만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시면서 연구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무한한 양계 발전을 기원할 뿐이다.

양계

**국내최초로  
오일백신 개발에  
성공!**

자  
매  
품  
ND 오일백신  
EDS 오일백신

ND · EDS  
혼합오일백신



NE오일백신은

1. 면역이 잘되고
2. 면역이 오래 지속되며
3. 안전성이 우수합니다.

NE오일백신은

500수분 (250ml)에  
₩ 38,000입니다.

**NE오일백신**

**+** 녹십자수의약품주식회사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동1031-29

☎ 582-9181~5

본사·공장: 경기도용인군기흥읍구갈리227-5

☎수원⑧3423/4